

광주·전남교육청 ‘책 읽는 문화’ 확산 앞장

독서교육 핵심사업 선정 추진

광주, 범시민 독서 문화 프로젝트
전남, 글로컬 독서인문학교 사업
“학생 스스로 미래 설계하는 환경”

광주·전남 교육 현장에서 독서교육이 한창이다.

광주는 지난해 학교 일선에서 진행하던 교육을 확대해 올해는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남은 올해 학교의 독서토론과 글쓰기 교육을 장려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9일 광주·전남교육청의 2025학년도 독서교육 추진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함께 읽고 더불어 생각하며 모두가 성

장’을 교육 목표로 뒀고, 전남도교육청은 ‘책 읽는 문화 확산·질문하는 역량 함양·독서인문 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자 양성’을 목표로 뒀다.

이를 위해 양 교육청은 올해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사업들과 연계해 독서 문화 확대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광주 ‘다시 책으로, 다함께 책으로’

광주교육청은 ‘2025 다시 책으로, 다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를 올해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지난해 ‘다시 책으로’라는 이름으로 일선 학교 1180곳에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시교육청은 올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학생을 넘어 교직원과 학부모, 대학까지 이어지는 범시민 독서 문화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번 독서교육 사업은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역량 향상 △책 읽는 문화 조성 △비판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 개발 △학교 공동체성 강화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독서문화 확산 등 다섯 가지 목표 아래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독서활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학습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교육과정 내에서 독서시간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과 지역 도서관, 지자체 등의 연계를 통해 학교를 넘어선 범시민 독서 운동으로 확장하고, 모두가 책을 통해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광주교육의

핵심은 독서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광주 지역 내 독서문화가 살아 숨쉬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 문화 결합 독서교육’

전남교육청은 독서 정책의 핵심으로 독서 토론과 글쓰기를 활용한 인문학 독서 교육으로 삼고 ‘글로컬 독서인문학교’를 올해 특징적인 사업으로 꼽았다.

이번 사업은 올 연말까지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주도해 △2030교실 연계 독서인문교실 특화 프로그램 △지역 독서인문교실 운영 △지역사회와의 진로·진학 연계 등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도서관을 활용해 김대중 독서교실(초등학교)과 청소년 작가교실(중학교), 진로진학 인문교실(고등학교)

교)을 꾸려 독서·토론·글쓰기 중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이 사업과 관련해 해남지역 학교 3곳을 대상으로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한 바 있다. 전남 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해 지역에 독서인문교실을 개설하고, 지역 문학관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협력해 창의적 진로체험과 취·창업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도서관이 함께 협력해 추진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책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전남경찰,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선거범죄 24시간 대응 체계

광주·전남경찰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전남경찰은 최근 산하 경찰관서와 지역 경찰서에 각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촉박한 선거 일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양청은 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거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공조에 나선다. 전남경찰은 201명 규

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정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집중해 단속하고, 단순 실행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 정당의 소속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관련 불법 행위, 당내 경선과 관련된 불법 사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중립성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하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캠페인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 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 광주경찰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와 회원 등이 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17회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49캠페인을 갖고 전일빌딩-중앙초등학교-아문당 하늘마당 일대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김영배 기자

광양항 15m 향유고래, 엿새 만에 먼 바다로 돌아가

4일 첫 발견후 연안 뱀돌아 “작은 화상, 건강 문제없어”

광양항 연안을 떠돌던 멸종위기종 향유고래가 엿새 만에 넓은 바다로 떠나갔다.

9일 여수 해양경찰서와 국립수사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7시54분께 광양항 인근 원유 부두에서 고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해 잠수한 모습이 최종 목격됐다.

여수 해경은 인근 주민과 선박 등에 “향유고래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고래는 지난 4일 오전 9시48분께 광양항 송도 연안에서 최초 발견됐다. 해경 구조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고래의 종류와 상태를 파악한 후 깊은 바다로 유도하는 구조 작업을 펼쳤다.

고래는 4일 오후 1시30분께 스스로 깊은 해역으로 이동해 해경은 구조 작업을 마무리했으나 같은 날 오후 6시께 다시 저수심 구역으로 돌아오면서 구조 작업을 재개했다. 고래는 닷새 동안 1~2km 반경을 벗어나지 않고 저수심 구역에서 유유히 떠다녔다. 여수 해경은 고래연구소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고래를 먼 바다로 유

도하기도 했다.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고래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긴 시간 수면 위로 올라와 햇빛에 노출되면서 작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래연구소 관계자는 “향유고래가 이런 얕은 구역까지 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세한 원인을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개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원인을 찾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서 가상화폐 채굴장 가장한 불법 게임장 ‘덜미’

신·변종업소 단속과정 적발

광주의 한 사무실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꾸민 뒤 불법 게임장으로 운영한 업주가 적발돼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관내 상가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광산구 한 사무실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꾸민 뒤 불법게임장으로 운영해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임기를 가상화폐 채굴기로 위장한 후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

에게 가상자산 개인지갑을 만들게 하고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게임에 참여하면 코인 어플 거래 메뉴에서 본인 계좌번호로 수수료 10%를 제외한 돈을 입금하게 해 현금화 했다.

경찰은 최근 인천과 대전 지역에서 늘어나는 신·변종업소가 지역까지 침투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으로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사용된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를 압수했다.

정경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단속 후에도 불법 게임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광주 북구 교회서 승합차 훔친 10대 3명 검거

무면허… 전북 김제서 붙잡혀

교회에서 승합차를 훔치고 달아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A(17)군 등 3명을 특수절도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군 등 3명은 전날 오전 2시4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교회에서 자동차 열쇠

를 훔쳐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를 몰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전북 김제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2024년 300개로 늘었고, 올해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354개 동아리에서 총 4376명의 학생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프로젝트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전남교육청은 1멘토-다멘티(多멘티)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이 영산강 유역의 수질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수질을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단순 체험을 넘어 지역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 결과는 ‘디지털생태탐사지도 웹’에 공유된다. 이 웹은 활동 내용을 저장·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 교육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정에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